

자원봉사자 3000명...거리축제·공연, 문화도시 매력 선사

광주세계수영대회 성공 이끈다

4 시민의 힘·문화 선보인다

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7월 12일~8월 18일)는 시민의 활발한 참여와 광주의 풍부한 문화 자원을 통해 성공 대회로 기록될 전망이다.

17일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조직위에 따르면 오는 7월 12일~28일(17일간) 열리는 '선수권대회'는 유명 수영 스타들이 참여하는 세계 최고의 이벤트다. 또, 오는 8월 5일~18일(14일간) 열리는 마스터즈 대회는 국내를 포함한 전 세계 수영 동호인들이 참여하는 대규모 축제다. 참여 인원 역시 선수권대회 200여 개국 7000여명, 마스터즈대회 90여 개국 8000여 명이다.

광주 남부대 국제수영장(경영, 다이빙), 남부대 축구장(임시풀수구), 연주체육관(임시풀-아티스틱수영), 조선대

동역·의전·시상보조 시민 투입

대회기간 프린지페스티벌 열어

경기장별 소공연 지역문화 소개

축구장(임시풀-하이다이빙), 여수엑스포 해양공원(오픈워터수영)에서 펼쳐질 각 경기는 종목별로 대회운영본부가 구성되고, 지난해 10월 경기분야별 전문가 6명을 종목별 담당관으로 위촉했다.

경기 진행은 심판 등 경기운영위원들과 기술인원, 이를 지원하는 자원봉사자들로 운영되며 사전에 통역, 의전, 시상보조 등 경기별, 임무별 교육도 실시된다. 조직위를 포함해 총 지원되는 인력은 3650명이며 이중 3000명이 자원봉사자이다. 사실상 '시민의 힘'으로 대회를 치르는 셈이다.

경기 시상은 선수권과 마스터즈 대회 입상자들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선수권대

회는 1위~3위까지 메달을 수여하고 국기 게양, 국가연주 등의 의전이 진행된다. 이에 반해 마스터즈 대회는 1위~6위까지 메달을 수여해 수영 동호인들에게 축제 분위기를 제공한다. 현재 메달 디자인은 선수권과 마스터즈 대회를 구분해 확정된 상태며 오는 4월 일반인에게 공개될 예정이다.

각 경기장별로 경기가 열릴 때마다 관람객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진행된다. 경기 시작 전 또는 경기별 중간에 음악과 경음, 애니메이션, 각종 음향 효과를 활용해 흥미로운 볼거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각 나라 대표단의 편의를 위한 경기정보센터도 운영된다. 선수촌 내 국제구역에 6월 20일~7월 28일까지 39일간 운영될 경기정보센터는 선수와 코치, 감독들에게 경기관련 각종 정보와 자료를 제공한다.

문화도시 광주의 아름다움도 선사한다. 광주시는 대회기간에 맞춰 문화·예술·관광 이벤트, 프로그램을 집중시킬 방침이다. 2015년 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와는 달리 비용을 지급하고 즐길 수 있는 공

연·전시 등도 함께 구성, 아시아문화중심도시 광주의 위상을 알릴 계획이다.

광주시는 대회기간 광주프린지페스티벌을 운영해 수영대회 선수단과 관람객에게 광주의 거리축제 문화를 즐길 수 있게 할 계획이다. '2019 ACC광주프린지인터내셔널'을 통해 해외팀을 초청, 거리극과 공중 퍼포먼스 등도 함께 선보인다. 공동 예술의 거리 및 대인 예술시장은 아시아문화예술활성화 거점 프로그램을, 주요 공연장과 선수촌·경기장 인근·금남로 등에서는 시, 자치구, 광주문화재단, 민간공연단체 등이 17건의 공연, 전시, 문화예술행사 등을 집중해 개최할 예정이다.

대회 선수단과 방문객을 대상으로 5개 경기장별로 경기 전 1~2시간이 소요되는 소공연을 열어 경기 분위기를 조성하고 및 지역문화를 소개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 밖에도 ▲시티투어버스 확대 및 인근 관광지 연계 ▲광주 관광안내소 특별 운영 ▲광주 외국인 휴스테이 운영 ▲다량 체육행사 및 이벤트 동시 개최 등도 준비 중이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오전 울산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수소 경제와 미래 에너지, 울산에서 시작됩니다'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수소 활용 전시장을 둘러보고 있다. 문 대통령이 수소 활용 모빌리티(수소차, 드론 등) 부스에서 김세훈 현대차 연료전지사업부장의 설명을 듣고 있다.

문 대통령 "수소경제 태동기 시장 선점 중요"

새해 첫 지역 일정 울산 수소경제 로드맵 발표 행사장 방문

문재인 대통령이 연초부터 혁신성장 행보에 나서고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5일 청와대에서 대·중견기업 초청 간담회를 한 지 이틀 만인 17일 새해 첫 지역 일정으로 울산에서 열린 '수소경제 로드맵' 발표 행사장을 찾아 한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수소경제에 힘을 쏟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이날 인사말에서 "수소경제가 태동하기 시작한 지금, 세계 시장의 선점이 중요하다"며 "다행히 우리의 강점과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 전통주력 산업인 자동차·조선·석유화학과 연계해 수소경제를 선도해나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소경제 로드맵은 이런 강점을 바탕으로 세계 선도국가로 도약하고자 하는 청사진"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제껏 한국경제를 '추격형'에서 '선도형'으로 바꿔야 한다며 혁신

성장을 통한 경제 체질개선을 강조해왔고, 그 해법 중 하나로 이날 수소경제를 제시한 셈이다. 또 에너지 시스템 전환과 일자리 창출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겠다는 구상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문 대통령은 국민적 관심사인 미세먼지 문제를 언급하며 "2030년까지 정부 목표대로 수소차가 보급되면 연간 3만, 현재 발생량의 10%에 해당하는 미세먼지를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문 대통령은 이 과정에서 정부의 적극적인 기업 지원도 약속했다. 핵심기술의 국산화·상용화를 지원하는 것은 물론, 수소차에 대한 보조금을 확대하는 등 수요 확대에 정부가 나서겠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규제 샌드박스 1호 사업이 '도심 수소차 충전소 설치'라는 점을 언급하며 관련한 규제개혁에 힘을 쏟겠다고도 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의 성공 개최를 위해 자원봉사자들이 대회 운영과 관람객 안내 요령 등을 강의받고 있다.



지난해 10월 광주시 동구 금남로 일대에서 열린 '충장축제' 거리퍼레이드 행사에서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마스코트인 '수리'와 '달이'가 시민을 향해 손을 흔들고 있다.

광주시 2건·전남도 3건 예타 면제 신청...이르면 28일께 심사 결과 발표

홍 부총리 "지역균형 차원 검토"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기준 등을 다음주나 다다음주 종합적으로 발표하겠다"고 밝혀 광주·전남지역에 배정되는 예타 면제 사업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서울 동작구 소상공인연합회를 찾아 소상공인 대표자와 대화를 나눈 뒤 기자들과 만나 "예타 면제는

지역균형 개발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투자활성화를 위해 사회간접자본(SOC)에 대한 예타 완화를 추진하고 있다. 홍 부총리는 예타 면제 대상에서 수도권 지역을 제외하기로 결정했다는 언론 보도에 "현재 논의 중인 사안으로 그 기준이나 내용을 지금 설명하기는 적절하지 않다"며 "다음주나 다다음주 종합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고 설명했다.

현재 광주시는 첨단 3지구에 인공지는

분야 세계 최고의 역량을 갖춘 글로벌 허브를 만드는 '인공지는 중심 창업단지 조성'(사업비 1조원)과, 허브기반을 중심으로 전국 전문기관과 연계해 광융합 기술 종합 지원체제를 구축하는 '광융합산업 핵심 기술 구축'(8000억원) 등 2건을 예타 면제 사업으로 신청했다.

전남도는 해안관광도로 사업의 전남지역 구간인 신안-압해-해남 화원 간 연도교(4828억원), 완도-고흥 간 해안관광도로(9008억원), 여수 화태-백야 간 연도

교(5277억원) 사업을 예타 면제 사업으로 요청했다. 현재 광주시와 전남도는 이르면 오는 28일께 예타 면제 대상 사업이 발표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정부는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의 예타조사 대상을 총사업비 500억원(국비 300억원) 이상에서 1000억원(국비 500억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태양발전소 분양

동·식물 재배사(건물 위)가중치 1.5배
100KW 월 270만원 예상(+1층 농장 임대비) · 50KW 월 135만원 예상

땅+건물+태양광 년12% 수익
지금대출가능

연금 발전소 태양광이 효자!!

분양지역: 영광, 영암, 완도, 진도

연락주시면 방문하여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100년 기업 **정직·신뢰**
(주)해가온개발

상담 전국대표 1588-1543
이길영 010-3645-1479

광주광역시 북구 중흥로 166 해가온빌딩 1층

착한보청기협동조합

보청기

70~50% 할인 이벤트

"불만족시 1달 안에 100% 환불"

✓ **잡음없이 깨끗한 소리**

062) 655-6544

062) 362-3336

✓ **윙윙~ 울리지 않는 보청기**

산수오거리지점

돌고개지점